

婦 行 篇

益智書云、女有四徳之譽 一曰婦徳 二曰婦容 三曰婦言 四曰婦工也。

⇒ 《익지서》에 이르기를, 여자는 네 가지 덕의 아름다움이 있으니 첫째는 부덕(婦徳)이고, 둘째는 아름다운 용모이고, 셋째는 여자다운 고운 말씨이고, 넷째는 섬세한 솜씨이다.

⇒ 《益智書》に言うのに女は四つ徳の美しさがあるから第一は婦徳で、二番目は美しい顔つきで、三番目は女らしいきれいな物言いで、四番目は繊細な腕前だ。

婦徳者 不必才名絶異。婦容者 不必顔色美麗 婦言者 不心辯口利詞 婦工者 不必技巧過人也。

⇒ 부덕(婦徳)이라는 것은 반드시 재주가 있다는 평이 뛰어난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고운 용모라는 것은 반드시 얼굴이 곱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좋은 말씨란 반드시 입담이 좋아서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며, 섬세한 솜씨란 반드시 손재주가 남보다 뛰어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 婦徳というのは必ず才があるという評価がすぐれることを志すことではない。きれいな顔つきというのは必ず顔がきれいで名前らしいのではなくて、良い物言いと云うのは必ず話術が良くて言葉がお上手ではなくて、繊細な腕前と云うのは必ず小手先が人よりすぐれることを言うのではない。

其婦徳者 清貞廉節 守分整齋 行止有恥 動靜有法 此爲婦徳也 婦容者 洗浣塵垢 衣服鮮潔 沐浴及時 一身無穢 此爲婦容也 婦言者 擇師而說 不談非禮 時然後言 人不厭其言 此爲婦言也 婦工者 專勤紡績 勿好暈酒 供具甘旨 以奉賓客 此爲婦工也。

⇒ 부덕(婦徳)이라는 것은 마음이 맑고 곧으며 엄치가 있고 절도가 있어 몸가짐을 정돈하고 가지런히 하며 행동거지에 수줍음이 있고 동정(動靜)에 법도가 있으니 이것이 곧 부덕이다. 부용(婦容)이라는 것은 옷을 세탁하여 먼지나 때를 깨끗이 씻어내고 옷차림은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며 목욕을 제때에 하여 한 몸에 더러움이 없게 하면 이것이 곧 부용이다. 부언(婦言)이라는 것은 남이 본받을 만한 말을 가려서 하고 예의에 어긋나는 말은 하지 말며 말할 수 있는 적당한 때가 무르익은 후에 말을 하여 사람들이 그 말을 싫어하지 않게 되니 이것이 곧 부언이다. 부공(婦工)이라는 것은 오로지 길쌈을 부지런히 하고 술 빚기를 좋아하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갖추어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니 이것이 곧 부공이다.

⇒ 婦徳というのは心が清くて真っ直ぐで廉恥があつて節度があつて身持ちを整理してきちんとしこなして動きに恥ずかしさがあつて動靜に節度があるからこれがすなわち婦徳だ。婦容というのは服を洗濯してほこりや垢をきれいに洗い流して服装はきれいで貞潔にしてお風呂を適時にして身に汚さがないようにすればこれがすなわち婦容だ。婦言というのは他人が模範とするに値する言葉を選び分けてして礼儀にかなわないことは言わなくて話せる適当な時が熟した後もの言つて人々がその言葉が嫌ではなくなつたらこれがすなわち婦言だ。婦工というのはひたすらはたおりを手まめにして醸造するのが好きではなくてお

いしい食べ物を取り揃えてお客さんをもてなすことだからこれがすなわち婦工だ。

此四徳者 是婦人之所不可缺者 爲之甚易 務之在正 依此而行 是爲婦節。

⇒이 네 가지 덕이라는 것은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행하기는 매우 쉽고 힘쓰기 올바른데 있으니 이에 의해 실천한다면 이것이 바로 부녀자로서의 범절이 된다.

⇒この四つの徳というのは一つも抜けてはいけないのだ。行うことはとても易しくて力をつくすことが正しいのにあるからこれによって実践したらこれがまさに婦女子としての日常生活になる。

太公曰、婦人之禮 語必細。

⇒강태공이 말하기를, 부인의 예절은 반드시 곱고 섬세해야 한다.

⇒太公が言うのに奥さんの礼節は必ずきれいで繊細ではなければならない。

賢婦 令夫貴 惡婦 令夫賤。

⇒어진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만들고 악한 아내는 남편을 천하게 만든다.

⇒優しい妻はご主人を貴とくして悪い妻はご主人を卑しくする。

家有賢妻 夫不遭横禍。

⇒집안에 어진 아내가 있으면 남편은 뜻밖의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家に優しい妻がいれば夫は思いがけない災いにあわない。

賢婦 和六親 佞婦 破六親。

⇒어진 아내는 친척을 화목하게 하고 간교한 아내는 친척의 화목을 깨뜨린다.

⇒優しい妻は親戚を睦まじくして奸巧した妻は親戚の和睦を破る。